

## 포도나무와 포도주

| 김흥호 |

그대로 두면 썩는 포도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아두면, 공기 중 어디에나 있는 누룩이 발효시켜 오래도록 변함없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정신의 발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 요한복음 15:1~19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는 포도 재배를 많이 안하니 포도주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 긴 장마 때문에 일광이 부족해서 포도가 제대로 익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분이 부족하고 포도가 잘 되지 않지요. 그러나 지중해 연안에는 장마가 없고 계속 내리쬐이는 햇빛 때문에 포도가 참 잘되어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그 대부분의 목적이 포도를 그저 먹자는 것보다는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에도 아마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나 봐요.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실 때도 마지막에 드신 것이 우슬초 꼬트머리에, 해움에 찍은 신 포도주였어요. 유대는 아열대라 얼마나 햇빛이 따가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고통 중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이는 것이 제일 고통을 준답니다. 못 자국으로 피는 흐르지, 그 상처에 햇빛이 내리쬐이지, 그래서 한없는 아픔과 목마름을 느낀대요. 피가 없어지면 심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제일 고통이라나 봐요. 십자가 상의 일곱 마디 중 한마디가 목이 마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우슬초 끝에 해움을 매고 거기다 신 포도주를 찍어서 준 거예요. 예수는 그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만 운명하고 마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 날 밤,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셨어요. 그때도 떡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하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각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피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혹은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오래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포도주를, 해가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 향기를 발하는 복음에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천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욱 향기로우며 앞으로 천년, 만년 묵으면 묵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포도주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로 상징되는 내 피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정신이란, 영어로는 스피릿spirit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술에도 쓰고 있습니다. 술이라고 해도 좋고, 정신이라고 해도 좋는데 포도가 일단 포도주가 되고, 육체가 일단 정신이 되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루 이틀만 내버려두면, 썩을 포도가 일단 포도주가 되면, 그것은 백년도 가고, 오백년도 가고, 천년도 갑니다. 지금도 프랑스 같은 데서는 몇 백년 묵은 포도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향기롭고 고귀하여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도주를 저장하는 사람이 날

짜를 적어 두고, 이것은 천년 후에 마시라든가, 이천년 후에 마시라든가 하고 물어둔다고 합니다. 자기가 파묻어 두는 포도주를 천년 후에 꺼내어 마시라는 사람들의 마음씨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천년씩이나 마시고 싶어서 어떻게 기다리지요? 그리고 마시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손들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징기스칸이 와서 마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누가 와서 먹든지 천년을 기다리라는 그들의 마음에 어쩐지 인생을 신뢰하고 영원을 내다보는 신앙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프랑스에는 수백 년 묵은 포도주가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짜도 많이 나온답니다. 몇 백 년 되었다는 포도주 가운데는 가짜가 많답니다. 마치 우리 그림이나 골동품에 가짜가 많듯이 거기도 가짜가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도주 감별인이 있대요. 그 사람의 헛바닥에 포도주가 닿기만 하면 이것은 450년 혹은 470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낸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포도주 감별인은 일생에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셔보지 못한 사람이래요. 만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그만 감각이 마비가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대요. 포도주를 마셔보지 못한 사람만이 포도주를 감별할 수 있다는 이치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무엇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포도주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살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 죽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요, 못 얻으면 멸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는 참 교회요, 못 얻었다면 거짓교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어떻게 하면 썩을 포도가 변하여 썩지 않을 포도주가 됩니까. 그것은 발효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효입니다. 발효(發酵)란 한자로는 효를 발한다고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하고 묻는 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요. 하여튼 발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발효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김숙희 선생님께서 물어보니 공기에는 어디나 발효시키는 이스트, 우리말로 누룩이 있는 모양입니다. 포도알에는 이미 그 누룩이 묻어 있대요. 마치 성령은 어디나 계셔서 누구에게나 작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 누룩을 어디서 구해 올 필요가 없대요. 불순물만 제거하고 나무통이건 항아리건 차곡차곡 담아 넣고, 밀봉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발효한대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이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낡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을 때에 터지나 봐요. 물론 열도 나겠지요. 아마 나오는 것은 탄산가스라나 봐요. 사이dana 샴페인 같은 것이 평하고 마개가 터지듯이 웬만한 낡은 부대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여기서 부대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낡은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새 교회라야 한다” 하고 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새 교회라야 해요. 새 교회 아니면 발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새 교회란 무엇일까요.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새 교회라고 생각해요. 요새 신흥교회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골칫거리예요. 무슨 복음교회니, 무슨 통일교회니, 저희들이 새 교회라고 야단들인데, 공연히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새 교회란 별 것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원하

다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초대교회에 모델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느라고 약기를 안 쓰는 교회도 있지요. 초대 교회는 피아노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문명에 역행하는 생각이지요. 초대 교회가 원시교회가 될 필요는 없겠지요. 요는 초대건 현대건 영원한 교회라야 하지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새 교회요, 그런 교회에서만 발효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가지게 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학 교회는 결국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하면 초대 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되고, 그것을 못하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발효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밀봉입니다. 밀봉이란 말은 볼 수 없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없이는 발효는 불가능합니다. 칼라일은 우주는 교회요, 세계는 제단이요, 인생은 제물이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 손으로 지은 교회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밀봉만 되면 저절로 끓어오릅니다. 끓어오름을 우리는 고민이라 합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인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

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것이 발효의 고통입니다.

발효의 고통이란 죄의식을 말합니다. 죄인이 되어 죄의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양심이 고결하여 느끼는 죄의식입니다. 간음한 사람이 느끼는 죄의식이 아닙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도 벌써 간음했다는 죄의식입니다. 저 여자가 곱다, 그렇게만 생각해두도 벌써 죽을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상하고 깨끗한 양심입니까? 마치 발효한 술이 무색투명하여 일체 부패균을 죽여 버리듯이 한없이 고상한 양심이 일체의 죄악을 죽여 버리는 속죄의 거룩한 고민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의 백혈구가 병원과 싸워서 이기느라고 열을 내듯이 발효란 일체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정의의 열을 올리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지나가면 일체 죄악이 사라지고 바울의 로마인서 7장 25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하고 말하는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고 나오는 아름다운 포도주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술이 되면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번 발효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효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험을 못 가지면 인생은 한없이 허무합니다. 이 경험을 근본경험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끝으로 영생의 재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포도가 변해서 썩지 않을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또 별 것이 아닙니다. 발효하는 경험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포도주, 십자가의 포도가 부활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 없이는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되는 아무 말도 안하기로 결심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재료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을 한문에서는 즉, 곧 ‘즉卽’ 자를 씁니다. 포도 즉 포도주, 생생 즉 사死, 말씀이 곧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변하여 하나님이 됩니다. 썩을 것이 변하여 썩지 않을 것이 됩니다. 육체가 변하여 정신이 됩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니다. 이것이 발효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포도주를 온 천하에 들고 나가서 먹이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로마인서요, 고린도전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쌌 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쪼갰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잡숴보셨어요? 가슴이 짜릿하지요. 성령의 역사는 짜릿한 역사입니다.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 술에 취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성령의 새 술에 취해 예언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끝) 

- 이 글은 『사람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1919-2012)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권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 노자 · 노자의 강해

김홍호 저 | 사색 권 | 48,000원

이 책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7회 강의한 내용이다. 교재는 권재 임희일의 『노자권재구의』이고, 부교재는 초횡의 『노자익』과 저자의 보충자료들이다. 책의 구성은 노자 도덕경의 해석과 노자구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저자가 발췌한 『노자익』(초횡)에 나오는 주해들 및 기타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횡의 노자주 발췌 등, 종래의 노자 해설들을 집대성하여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을 한 줄 한 줄씩 풀이하며 강의해나간 내용을 녹취하여 강의의 현장감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편집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이야기를 듯듯이 편하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